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5

2018년 11 월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기 관 명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사 업 명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5 - 노년마중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초고령 사회, 인구문제를 재인식하는 문화적 시각과 인식의 전환

- 가. 베이비부머 세대 중 처음으로 인구 백만 명을 넘는 58년생의 은퇴가 2015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는 마무리되고, 뒤이어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25.51%를 차지하는 42~56세의 은퇴가 약 15~20년간 계속될 것임.
- 나.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0년이 안 걸릴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세대 간 갈등 혹은 개인 능력의 문제로 치환되고 있음.
- 다.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정의와 해법이 수반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개별자로서의 자신·주변인·공동체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회복 또는 재구성이 아니라) 문화적 시각·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2. 문화다양성의 상호문화주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열린 시각의 필요성

- 가. 100세 이상의 전국인구 비율은 0.03%, 16,209명. 1916년 이후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이 겪어온 급격한 사회변화를 생각할 때, 태어난 시기에 따라 문화가 구성되는 세대효과(코호트 효과)가 점차 극명해지며 적어도 세대 간에만도 10~15개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음.
- 나. 지역과 나라를 넘어 다양한 정보와 문화가 공유되고, 정보공유 매체의 다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개인과 집단의 만남 및 교류도 점차 줄어들어 개인과 개인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이 분절되는 현상은 점점 심해짐.
- 다. 개별자로서의 자기인식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포함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열린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부합됨.

3. '나이 들어가는'나 그리고 당신, '문제'아닌 '존재'로서의 삶

- 가. 현재 노년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개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각 또래의 삶과 문화에 녹아든 아픔과 상처, 기쁨과 성취를 듣고 나누고 이해하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임.
- 나.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정책방향과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이라는 비전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민하는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이에 대한 성찰적 논의와 실천적 문화예술 교류활동의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2014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사회가 노년을 복지의 수혜자 혹은 실버산업의 소비자 등 대상화된 그룹으로서만 인식하고, 대한민국 노년 개개인의 삶과 존재방식,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 문화담론이 없음을 인식하고 2015년까지 노년-세대문화 담론화 작업과 세대문화 교류 시범사업들을 운영함.

4. 안양, 전형적 수도권 도시로서 세대문화 교류 시범사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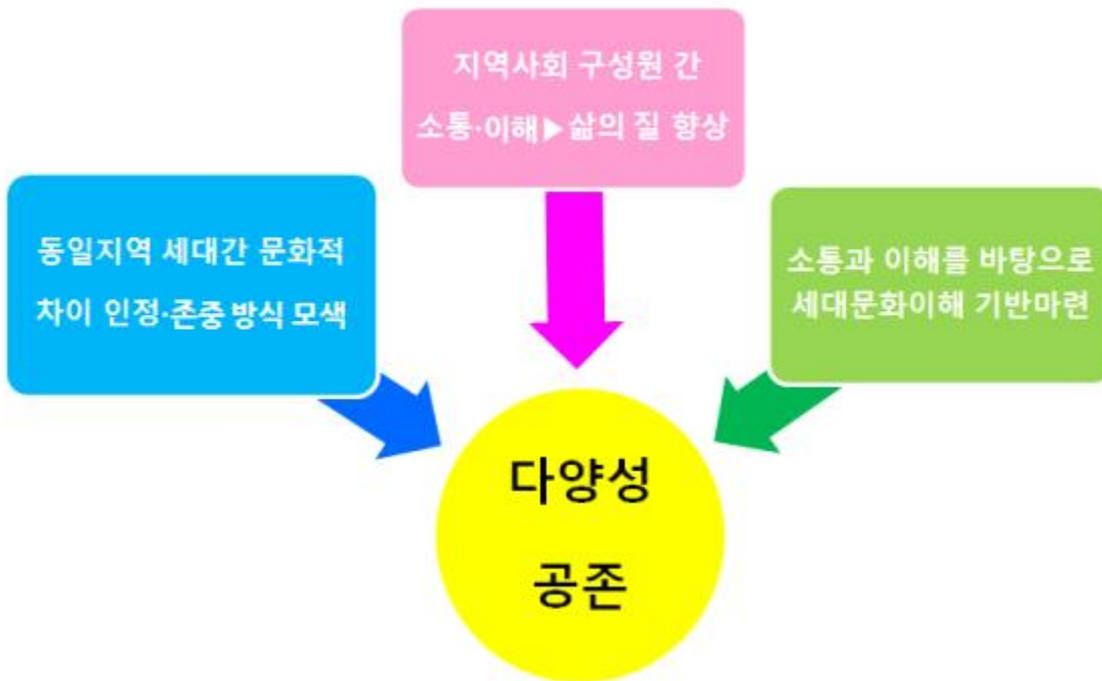
- 가. 안양은 대부분의 사회적 지표조사에서 전국 분포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특성을 지님. 이는 문화향유조사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데, 90년대 수도권에 형성된 신도심과 원도심과의 분화를 거쳐, 최근의 지역 재개발 등에 따른 도시 정주 변화 양상(인구의 감소, 다국적 외국인 거주변화, 연령대별 인구 구성 등) 등이 수도권 도시의 전형성을 띠음.
- 나. 안양천을 중심으로 수백 년에 걸쳐 구성된 교통의 요지인 '도시'로서, 근현대 이후 안양이 공·산업단지 또는 베드타운 역할을 하면서 수도권 도시의 전형성을 가지면서도, 오래된 도시 역사만큼 안으로는 밀도 높은 지역 공동체가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는 특징이 있음.
- 다. 이러한 도시 공간 안에서 노년과 중년, 청년, 청소년이라는 세대와 세부 지역(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공간과 역사, 구성원의 차이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도시의 문화교류 시범사례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함.
- 라. 17년 세대문화에 사업진행이 정체기에 있었지만, 18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노년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존의 부족함을 보완 개선하여 실행하고자 함.

II. 사업목표

1. 사업비전

예술을 통한 세대 간 문화다양성 공존

2. 사업목적



3. 사업목표



III.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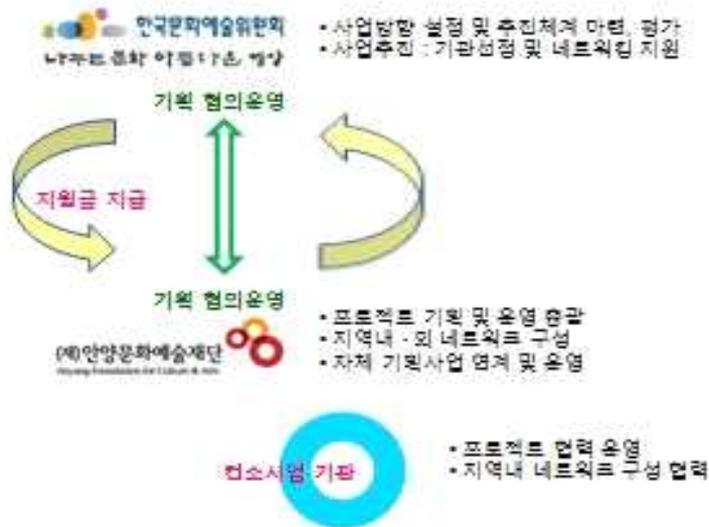


1. 노년, 나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년문화·세대문화 담론 활성화
 - 가. 문화다양성 주제에서 세대 간 문화의 이슈 공론화
 - 나. 문화를 이루는 주체로서 시니어 세대에 대한 인식 제고
2. 지역 내 노년 및 노년 준비세대, 청년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및 교류 활성화
 - 가. 지역 환경에 따른 세대 문화의 모델링, 유사 지역(경기권)의 이해 확산
 - 나. 문화다양성 및 세대 간 이해의 시민인식 확산
3. 세대별 이룬 및 장 전문가, 기획자, 예술인의 지역 외 유입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4. 노인복지, 평생교육, 교육청, 문화원 등 다양한 지역내외 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세대문화 다양성 협의구조 및 지역 논의 구조형성
 - 가. 지역 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관련 지적·실무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 나.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개선
5. 세대문화 다양성 활동 기획인력 양성 및 기관 내 문화다양성 감수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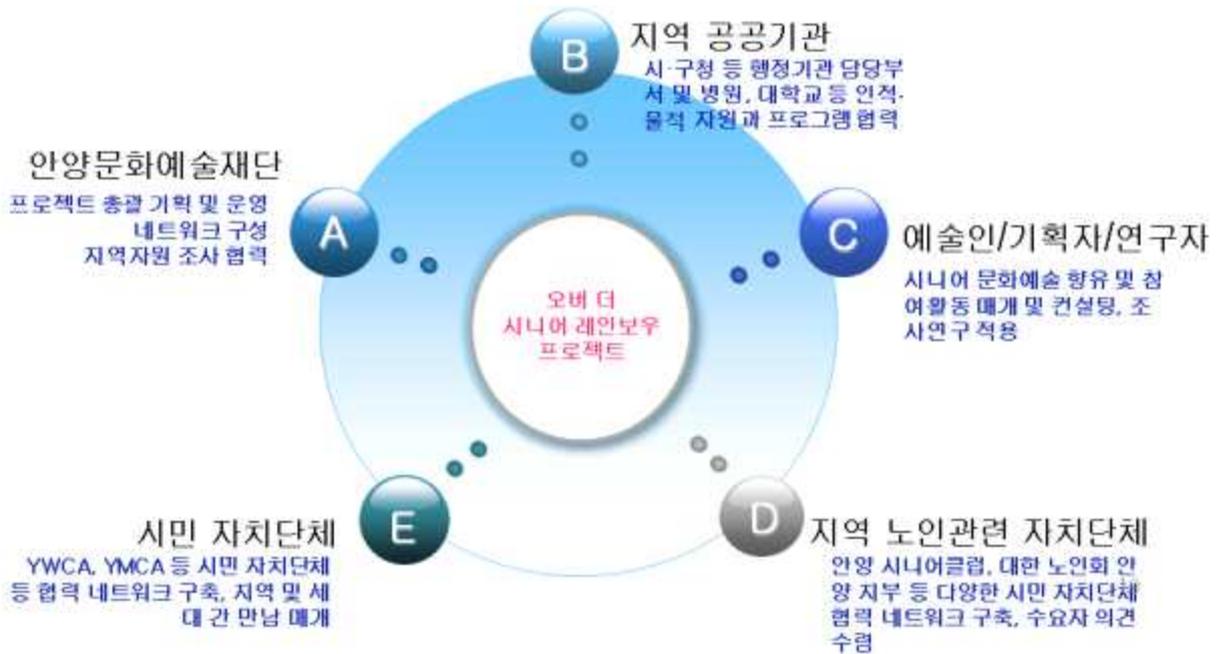
IV. 사업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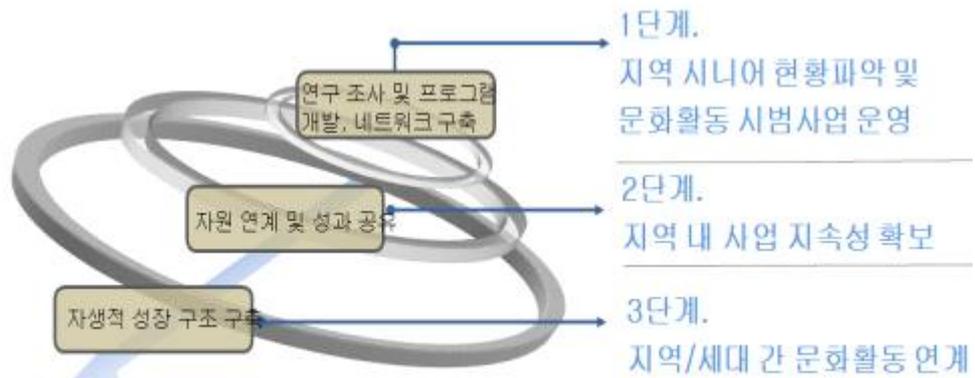


나. 각 주체별 역할



2. 추진 방법

가. 단계별 추진 방향 설정



지역/세대가 교차하는 문화다양성 확산

나. 추진 과정설계



V. 중장기 사업계획 (2018년~2020년 사업개요)

1. 5단계(2018년) : 세대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사회정책 제도화 기틀 마련

가. 문화다양성 협의회 점검 및 재구축

나. 안양문화예술재단 내부 직원 문화다양성 정책 및 실적사례 공유

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다양성 정책 점검 및 제도화 연구

라. 확산 프로그램 운영 및 점점으로 19년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에서 세대 문화다양성 및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

마. 담론화 콘텐츠와 실행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세대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2. 6단계(2019년) :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세대 간 문화분류에 대해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

가.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주요 추진주체의 과정지식과 성과를 지역 내외에 공유하고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확산

과 성장 도모

- 나. 재단 내부와 안양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확장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방향성 설정
- 다. 참여자와 쌍방향 소통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공모 등 다양한 방법 틀 실현

3. 7단계(2020년) : 세대 간 문화 분류 확장에 따른 사업 정착기

- 가. 2019년 사업에 대한 평가로 향후 사업 확산과 성장 도모
- 나. 시민들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과 꾸준한 연계

VI.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세부계획

1. 세대문화인문대중강좌 & 저자와의 대화

가. 추진배경 및 계획

1) 추진배경

가) 2014~2017년 세대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노년문화’ 담론화 작업 진행 중임.

나) 노년문화 입문·개론적 성격과 노년문화의 구체적 화두와 함께 노년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를 던지는 단계로 ‘여성노인’의 삶과 80대 선배가 60대 노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격동기를 살아온 대한민국 선배들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함.

다) 45세 이상의 주타깃뿐만 아니라 2030세대도 나이듦에 대한 방향성을 갈구하는 세대를 감안하여, 사회적 세대공감 교류의 관점에서 담론화하는 강연 필요

2) 추진계획

가)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강좌 및 단행본 진행방향 기획논의

② 강연자(저자) 섭외 협력

나) 지역예술부 직접 기획 및 운영

다) 세대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 및 아카이브 추진

나. 사업개요

1) 프로젝트명 : 세대문화인문대중강좌 나이듦 수업4 <老년의 路>

2) 사업목적

가) 노년의 선배다운 삶에 대한 담론을 강연 및 오픈톡을 통해 안양시민들과 나눔

나) 누구나 맞이하는 노년을 잘 준비하기 위한 강연으로 선배 강연자와 노년을 준비하는 강연자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함.

다)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5> 단행본의 저자와의 사전 강연 및 대화(오픈톡)로 홍보효과 도모

라) 안양예술 tv(유튜브) 및 안양예술재단 페이스 북 등을 통한 생중계 강연 송출 및 영상강의로 안양시민의 ‘노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누구나에게 노년의 삶에 대한 담론 확산

마) ‘노인’을 비롯한 소수자를 배려하던 사회가 혐오 및 배척하는 시대로 변모해 가는 것에 대해 선배가 선배로써 문화와 삶을 이야기함으로 ‘오해’가 ‘이해’가 되어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다양성프로젝트로 자연스럽게 확산

3) 사업내용

‘나이 들’에 대한 준비와 노년문화 담론화, 선배가 살아온 삶에 대해 이해하도록 강연을 통해 진행하며, 책으로 발간되기 전 책의 내용을 강연으로 풀어내고, 저자(강연자)와의 대화로 소통의 장을 만들.

- 세부내용

10/18(목) 19시 1강 평등한 노년의 삶을 위하여	10/25(목) 19시 2강 거대한 도시와 '노인'의 새로운 삶	11/1(목) 19시 3강 선배가 선배에게 전하는 이야기
<p>세계 여행을 다니며 노년을 즐기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노인 등 같은 세대여도 빈부에 따라 각자 달리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 속,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삶도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노년을 위해 우리는 ‘나이들’을 어떻게 마중해야 할까?</p> 	<p>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단어와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양상되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을 짚어보고,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급변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의 삶을 조명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연</p> 	<p>일제, 광복, 전쟁 등 현 세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이근후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세대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 과정과 삶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세대 간의 ‘오해’가 ‘이해’로 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선배 시니어로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날카롭지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p> 
<p>최현숙</p>	<p>정윤수</p>	<p>이근후</p>
<p>‘여성주의 생애사 연구소’ 소장 한겨레신문 칼럼 <최현숙의 말 쓰기> 연재 서울시민대학, 인천문화재단 등 구술생애사 시리즈 강좌 저서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할배의 탄생>, <장애가 있다, 장애를 잇다>, <이번 생은 망원시장> 등</p>	<p>문화평론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문화비평지 계간 리뷰 편집위원 오마이뉴스 논설위원 서울시 문화정책 자문위원 등 역임 저서 <클래식, 시대를 듣다>, <인공낙원>,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 등</p>	<p>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Nepal Samman 2010 수상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아 이사장 한국석불문화연구회 회장 및 고문 저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싶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예뻐 네팔 국왕을 알현하다> 등</p>

4) 사업기간 : 2018. 7월~11월

- 5) 사업장소 : 평촌아트홀 아트림
- 6) 강연대상 : '나이듦'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주타깃 4050, 2차타깃 6070/2030)
- 7) 후속추진사항
 - ① 강연영상 - 온라인 송출 및 아카이브
 - ②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5> 단행본 발간

2. 2018 안양 시점 展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시점(時點) :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 순간. / 시점(視點) : 어떤 대상을 볼때에 시선(력)의 중심이 가 닿는 점/ 시점(始點) :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
: 세 가지 시점에 관한 안양의 기록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
- 2)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했던 안양안의 역사,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기록을 통해 끌어내어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삶에 대해 사유하는 전시로 진행하고자 함
- 3) 안양의 탐사기록이 6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전시로 매년 다른 테마로 추진하여 안양속의 다양성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함.

나. 사업개요

- 1) 개요
 - 가) 사업명 : 2018 안양 시점 展
 - 나) 기간 : 2018년11월11일 ~ 17일(총7일)
 - 다) 장소 : 평촌아트홀 전시실 2

다. 사업내용

- 1) 세부내용
 - 안양의 종교와 영성, 개미왕국, 사라지는 마을의 테마를 가지고, 차이와 공존을 인정하는 전시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함.
 - 가) 종교와 영성의 도시 '안양'
 - 박해를 받던 천주교도들이 산전을 일구며 살다가, 최경환 성인이 옥사 순교한 수리산 성지(안양9동)

- 무슬림의 지원을 받지 않고 최초로 한국인이 지은 이슬람 성원(안양5동)
- 현대단학 및 뇌호흡법 창시자의 단학수련원 (안양5동)
- 원불교의 경기도 포교 근원지
- 세계 4위 규모의 교회인 은혜와 진리교회(안양5동)
- 불교 조계종의 수행도량 한마음 선원 (석수동)
- 전국 최대의 무속신앙인촌 (안양5동)

나) 안양시 땅속의 천만 개미 왕국

- 국내에서 가장 큰 개미굴의 기록을 중심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의 공존과 보존과 변화에 대해 서로의 생각차이를 소통하며, 안양시민과 안양시의 관심을 유도함

다) 임곡마을 개발

- 깊은 산골짜기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고을 수푸르지(林谷洞)라 칭한 마을이 옛모습을 버리고 고층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전과 후의 기록을 보여줌
- 전통의 계승, 자연의 보존보다는 현대화의 획일적인 개발의 기록으로 다양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2) 추진방식

- ① 안양시민연대 기록작가 및 큐레이터를 섭외하여 기획회의 운영
- ② 지역예술부 직접 기획 및 운영, 홍보

3) 기대효과

- 가) 안양이 투기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구도심의 개발이 활발히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 나) 여러 종교의 성지안에서 종교의 분쟁 없이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는 안양안에서의 다양성을 종교적 측면에서 되짚어 보며,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듯 살아가는 마을,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의 터전도 다양성의 관점을 제안함.
- 다) 안양시민도 모르는 다양한 종교, 개미왕국, 사라지는 마을의 모습을 전시를 통해 기억하고 소통하며 다양성에 대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계기로 유도
- 라) 6년 동안 안양탐사 기록의 테마를 구성하여 연속 전시의 기대를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록탐사대도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 마) 전시 오픈식과 라운드 테이블 (포럼)과 연계하여 진행하여, 안양내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시민에게 문화다양성을 연계하여 홍보할 수 있음.

3. 안양시점 1 자료집 제작

가. 사업개요

- 1) 프로그램명 : 2018 안양시점, #안양하다 제작
- 2) 사업목적
 - 가) 전시를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아카이빙 전시를 공유함
 - 나) 지역시민과 활동가에게 안양의 기록을 남기고,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 제안
 - 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대외 홍보
 - 라) 현재의 안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
- 3) 사업내용 : 2018 안양시점 아카이빙 전시를 자료집으로 엮어냄.
- 6) 추진방식 : 재단과 용역계약을 한 큐레이터와 사진작가가 전시와 관련 된 자료를 심화된 스토리와 사진을 엮어 제작함.

나. 추진계획

- 1) 추진배경
 - 가) 전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에서 활용하지 못한 사진 및 이야기를 충실히 담아 심화된 자료집으로 제작함.
 - 나) 짧은 전시기간에 전시공간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자료집을 배포하여 안양안의 다양성 확산에 기여.
 - 다) 온라인을 통한 아카이브와는 별도로 세대 간 같이 공유하고 논의를 위해서는 서적이라는 매체가 여전히 중요함.
 - 라) 안양시립도서관(10개), 안양과천 교육청 소속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하여 함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
- 2) 추진방향 및 내용 : 안양의 종교와 영성, 개미왕국, 사라지는 마을의 테마를 가지고, 전통의 계승, 차이의 인정, 공존과 개발 등을 담아냄.
- 3) 추진방식
 - 가) 제작 방식 : 안양관내 디자인 및 인쇄업체를 통한 인쇄물로 제작
 - 나) 계약 방식 : 별도의 수의계약
 - 다) 역할 분담 : 재단의 직접 기획 및 홍보로 추진
 - ① 재 단 : 전시 및 자료집 기획 방향 결정, 자료집 내용 검수, 자료집 배포 등
 - ② 큐레이터 : 전시 큐레이터의 계약내용의 수행과제 중 하나로 자료의 편집 및 구성, 집필 진행
 - ③ 작 가 : 사진 및 영상작가로 계약내용의 수행과제로 안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구술 및 집필, 자료 제공

4. 라운드 테이블

- 소담프로젝트 1. 안양의 문화다양성 미래를 위한 방향 제시

가.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가) 안양시 및 안양문화예술재단 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

나) 안양시의 오피니언리더 및 안양시민들의 문화다양성 라운드테이블 구성에 자발적 관심 유도에 기여

다) 2019년부터 안양의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시와 지지세력 구축

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의 홍보

2) 추진방향 및 내용 : 문화다양성 포럼을 통해 다양성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전국의 문화다양성 사업추진 사례 및 조례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안양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을 제시함.

3)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안양 내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 (가제)

나) 일 시 : 2018. 11. 13(화) 14시

다) 장 소 : 평촌아트홀 내

4) 포럼 구성 (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개회	
14:05~14:10	인사말	
14:10~14:40	2030 대한민국 문화비전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 소개	
14:40~15:10	전국의 문화다양성 사업(무지개다리) 사례 발표	
15:10~15:40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사례 발표	
15:40~16:00	안양의 14~15년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 발표	
16:00~16:30	발표자 - 플로어간 종합토론	
16:30~17:00	안양시점 展 오픈식 연계	

- 소담프로젝트 2. 안양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담론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안양에서의 문화다양성 확산에 대한 담론 프로젝트로, 문화다양성을 유아 및 어린 이들에게 예술교육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담론 테이블 구성함.

- 2) 19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예술가 및 자문위원, 안양의 유아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의 의견 수렴 및 추진방법 논의
- 3)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노출로 쉽고 부담 없이 받아들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어린이 극을 제작하여 안양의 어린이 집, 유치원을 중심으로 다양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문화다양성 어린이 극 제작

나) 기간 : 2018년 10월~ 11월(총4회)

다) 장소 : 평촌아트홀 아트룸 등

라) 참여자 : 총20여명

① 공연제작 및 기획자, 자문위원 : 5명

② 안양시 교육가 : 안양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유치원 연합회 임원,
초등학교 교사 등 10명

③ 시민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5명

2) 사업특성

- 가) 19년 문화다양성 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및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예비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진행 방법을 논의하고, 문화다양성을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거부감 없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제작자와의 라운드 테이블 운영함.
- 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 및 운영진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소단위 회의를 여러 차례 운영하여 의견 반영 및 적극적 파트너로써 향후 다양성 교육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

5. 세대문화 동아리 페스티벌 (생활예술동아리 한마당)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생활예술동아리 한마당

나) 기 간 : 2018. 6.16(토) 16시

다) 장 소 : 평촌아트홀

라) 참여자 : 동아리 활동 인원 50명 이상

2) 사업목적 : 다른 세대 간 소통을 예술로 풀어나가는 동아리들의 무대이며, 동아

리간 프로그램 논의로 하나의 무대를 만듭.

3) 추진계획

○ 참여자 모집

- ▶ 안양 관내 주요 문화거점기관 (문화예술재단, 청소년 수련관, 노인회관 등) 추천 및 재단 자체홍보를 통한 참여자 모집
- ▶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진행 방향 등에 관한 간담회 진행
- ▶ 참여자 대상 경합으로 우수 활동 동아리 안양시민 축제 무대에 및 찾아가는 공연에 활동기회 제공

○ 네트워킹의 장 마련

- ▶ 행사 전 무대에서의 예절과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간담회 마련
- ▶ 동아리 간 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관련 논의
- ▶ 행사 직후 공연장내 별도의 공간에서 참여자간 네트워킹의 장 마련

○ 결과보고

6. 단행본 제작

가. 추진 배경 및 계획

1) 추진배경

- 가) 2014~2016년 세대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노년문화’ 담론화 작업 진행 중임.
- 나) 2015년 나이듦 수업 강연이후 후속 추진 및 서적 문의가 지속됨.
- 다) 담론화를 위한 깊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서적이라는 매체가 여전히 중요함.
- 라) ‘나이듦 수업’ 판매경향을 보면 4050의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마)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삶의 갈구가 있음.

- 2) 추진방향 및 내용 : 현재 나이듦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4050을 주 타겟으로 하는
인문대중서적

3) 추진방식

가) 출판사 공동기획 및 제작지원

- ① 제작지원 : 단행본 편집 및 제작비 지원(1쇄 1,000부)
- ② 지원방식 : 단행본 제작 용역발주
- ③ 계약방식 : 별도의 수의계약
- ④ 출판사 선정 : 정한책방

나) 역할분담

- ① 재단

- 사업에 필요한 강연회, 포럼 및 토론회 개최, 저자 섭외, 강연 녹취, 기획회의 주재 등 사업 제반사항 수행
- 단행본 제작비 일부 부담

② 출판사 : · 공동 기획 및 제작비 일부 부담

4) 주요 계약사항

가) 저작권

- ① 저작물 저작권 : 강연자, 저자
- ② 단행본 기획저작권 : 재단
- ③ 단행본 출판권 및 공중 송신권 : 출판사

나. 사업개요

- 1) 사업명 : 2018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 2) 프로젝트명 : 세대문화 다양성 발굴 및 교류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5>
- 3) 프로그램명 : 노년문화 관련 단행본 발간
- 4) 사업목적
 - 가) '노년문화' 담론화 확장 및 구체화
 - 나) 일반 대중과 관련 프로그램 기획자 등 활동가를 위한 '노년문화'관점 제안
 - 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대외 일반홍보
- 5) 사업내용 : 2018 세대문화 인문대중오픈톡 담론을 단행본으로 엮어냄.
- 6) 추진방식 : 단행본 발간 용역계약

VII. 2017년 무지개다리 사업 실적

1. 열린문화토론 오픈 특 < 新 노년, 베이비부머 세대는 무엇으로 사는가? >

가. 총 5회에 걸쳐 ‘나이 들’과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희망의 노년 길찾기 을 주제로
평촌아트홀에서 아트林에서 사례공유, 강연, 좌담으로 진행

1) 기조 강연 :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조주은 여성학자)

2) 사례 1 : “다음세대와 함께 배움의 텃밭을 일구다”

(김찬호 사회학자, 정광필50+인생학교 교장)

3) 사례 2 :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고영직 문학평론가, 최영식 전 기업은행 지점장 및 문래동 흥반장)

4) 사례 3 : “여성의 경험을 말한다는 것” (조주은 여성학자, 김춘화 apap 프렌즈 회장)

5) 좌담 : “베이비부머 세대는 무엇으로 사는가”

(좌담: 김찬호, 고영직, 조주은 / 사회: 정성원)

나. 참여인원 : 300명

다. 추진성과

1) 15년 나이들 수업1 강연, 16년 릴레이로 나이들 수업2 강연을 준비하여 진행하여
‘노년문화’의 심층적인 담론화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17년에는 좀 더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컨설팅 결과로 개개인의 삶의 구술 사례를 강연, 오픈특
(사례공유), 좌담의 형식으로 풀어내 일반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기존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재 참여율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나이 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읽을 수 있던 기회였다고 봄.

3) 어렵게 생각하던 세대문화에 대해 본인의 직접적인 삶의 구술을 통해 다가감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었고, 18년도에는 한걸음 더 친밀한 대화, 강연으로 꾸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함.

2. 무지개다리 사진반

가. 무지개다리 사진반 참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3세대(대학생) 동아리와
1:1작궁맺기, 대화모임 및 평가회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세대간 상호 이해를 도모

1) 기간 : 2017년 5월~10월 (총24회)

2) 장소 : 안양시종합복지관 및 안양시내 등(주제별 출사 장소 선정)

3) 참여자 : 총 17명(만 60세 이상 안양시민 10명/대학생10명)

나. 참여인원 : 총 99명

다. 추진성과

- 1) 사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짐
- 2) 주제를 정하고 상호 간 겪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
- 3)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취감이 한층 더 고조됨

3. 메모로 프로젝트

가. 세대 통합과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한 대학생 세대문화 교류 기획자 양성

나. 세대 간의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1) 사업추진 대상 : 중학생 1,165명, 기획자 13명 / 연간참여인원 1,178명
- 2) 메모로 기획자 양성과정 : 6/2(오리엔테이션, 대상자 이해), 6/24(세대문화 교류기획 워크숍), 7/1(세대통합 무지개파티)
- 3) 자유학기제 연계 : 6월(메모로 운영준비), 9월~12월(메모로 프로그램 운영)
- 4) 평가회 : 12/29(프로젝트 평가)

다. 참여인원 : 1,270명

라. 추진성과

- 1) 기존의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교육이나 봉사 등 일방적인 활동인 경우가 많았음.
메모로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듣고 촬영한다는 점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2) 메모로 기획자 양성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들에게 메모로 프로젝트를 교육하고 실시함. 차후 더 많은 학교의 자유학기제 참여를 통해 메모로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었음

VIII.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변경 계획

1. 개요

가. 행사명, 일시 및 장소

- 1) 사업명 : 문화다양성 영화 상영
- 2) 사업일시 : 2018년 5월 23일(수)~24(목) 16시
- 3) 장 소 : 평촌아트홀 감상교육실
- 4) 목 적 :
 - 시민들에게 익숙한 ‘시니어’ 및 ‘세대문화’를 다룬 소재의 영화를 상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의 다양성 공존하는 삶에 대한 모습을 쉽게 홍보함.
 - 삶에 다양하게 스며들어 있는 ‘문화다양성’이란 낯선 주제를 영화로 풀어내 문화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지 가능여부 확인

나. 취지 및 기대효과

1) 취지

- 글이나 구호로 ‘문화다양성’을 알리지 않고, 삶의 모습을 보며 알릴 수 있어, 각각 개인의 삶으로 깊이 알 수 있는 계기 마련

2) 기대효과

- ‘차이를 즐기자’는 구호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어, 차이를 즐기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문화다양성’이나 ‘차이를 즐기자’ 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도 영화를 보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지로 보면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향상
- 문화다양성주간 행사로 영화상영을 하면서 안양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캠페인의 방향 설정 가능
- 세대 간 거부감 없이 영화감상 참여가 용이하여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세부 추진 프로그램

1) 영화상영

-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주제로 영화 상영
- 안양 관내 주요 문화거점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 안양문화예술재단 회원 2만명 대상 SMS 발송

2) 행사 내용

- 5.23일(수) : 카모메식당
- 5.24일(목) : 완득이

주관기관 (재)안양문화예술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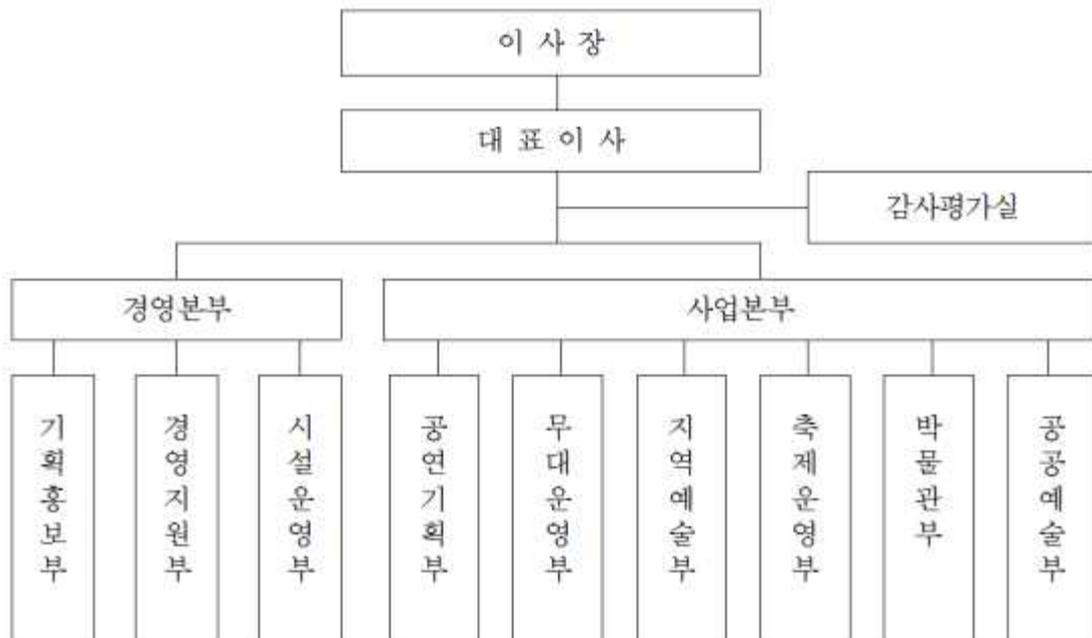
1. 설립목적

-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안양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에 이바지 함

2. 일반현황

- 설립연도 : 2009. 2. 26
- 홈페이지 : www.ayac.or.kr

○ 조직도



3. 기관의 주요 활동영역

- ▶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 ▶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안양파빌리온 운영 및 관리
-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 ▶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 ▶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 및 관리
-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 ▶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 ▶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 한 사업

4. 주요 사업 관련 실적

연도	사업명 및 주요내용	*해당사항에 체크	
		주관기관	컨소시엄
2013년	○ 안양파빌리온(舊.알바로시자홀) 재개관 ○ 안양실내악 페스티벌 및 실내악 콩쿠르 진행	√	
2014년	○ 김중업건축박물관 개관 ○ 세대문화 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1>	√	
2015년	○ 세대문화 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2> ○ 아침음악회 10주년 기념 시리즈 공연 진행	√	
2016년	○ 세대문화 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3> ○ 생활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진행 ○ 안양사랑 합창제 진행	√	
2017년	○ 세대문화 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4> ○ 아줌마 축제 진행 ○ 생활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진행 ○ 지역예술활성화 지원사업	√	

5. 기관의 특징 및 장점

■ 2018년 정책여건

- 「문화기본법」시행으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이 명시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통합적으로 연계,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정책 확대
- 「지역문화진흥법」시행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권역 안에서 스스로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실현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이 정의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전방위 정책의 다양성 가치를 보호, 증진하는 정책 추구
- 안양시는「인문학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인문학의 가치를 일깨워 사람 중심의 행복한 인문학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며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인구 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 개념의 약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사회 갈등요소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극복방안 필요

■ 2018년 추진방향

- 시민이 주체적으로 일상의 문화예술적 삶을 가꾸면서 자아 성숙을 추구하고, 다양한 이웃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문적 관점에서 사람됨의 근본가치와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장(場) 형성
- 재단이 보유한 자원 및 인적 역량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예술가, 기획자, 향유자, 관계기관 등)의 문화예술 교류 및 관계형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 문화다양성 가치에 기반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종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 및 활동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지역과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우수 콘텐츠(공연, 전시, 교육 등) 기획 및 유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다양화, 국가 및 광역 지원사업 적극 유치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재정건정성을 제고하는 책임성 기반의 **자율성** 향상
-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공정성을 실천하고, 경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만족도 증대를 위한 경영 **투명성** 증대